

순천시청 양궁 단체전 은메달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
결승서 현대모비스에 2-6 패
1세트 따냈지만 내리 3세트 내줘
10월 전국체전 좋은 성적 기대



순천시청 양궁팀 박서진(왼쪽부터), 최미선, 손예령, 이은경.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청 양궁팀이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양궁협회(회장 박병국)에 따르면 순천시청은 24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현대모비스에 세트 스코어 2-6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최미선, 이은경, 박서진)은 1라운드에서 56-55로 2점을 챙기며 쾌조의 스타트를 했다. 하지만, 내리 3세트를 내주며 종합 세트스코어 2-6으로 패했다.

순천시청 임동일 감독은 "우승을 놓쳐 아쉽지만 힘든 환경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믿고 따라와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고, 10월에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진(청주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일반부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김선우(코오롱엑스텐보이즈)를 6-0으로 제압하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청주시청이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현대제철을 꺾으면서 김우진은 2관왕을 이뤘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전인아(전북도청)가 김수민

(현대모비스)을 상대로 6-2로 승리하며 우승했다.

컴파운드 일반부에서는 김중호(현대제철)와 김윤희(현대모비스)가 각각 남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일반부 혼성단체전 결승에서는 울산광역시 인권광역시를 상대로 6-2 승리를 거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당구 '파워 샷'

고성군수배 3쿠션 김행직·스누커 박용진 우승 등 금2·은1·동1



3쿠션 금메달 김행직



스누커 금메달 박용진

전남당구가 전국 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24일 전남당구연맹(회장 조호석)에 따르면 전남당구연맹 선수들이 최근 열린 2022 경남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당구전제' 김행직은 캐롬 3쿠션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이충복(시흥시체육회)을 50-46(37이닝)으로 꺾고 1위에 올랐다.

김행직은 지난 7월 정읍전국당구선수권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정상에 올라 서울3쿠션월드컵에서 선전을 기약했다.

그는 8강전에서 김형곤(서울당구연맹)을 50-26(20이닝)으로 꺾고 4강에 진출한 뒤 9점 장타를 두차례나 뽑아내며 정승일(서울당구연맹)을

50-32(26이닝)으로 압도했다.

장문석·서서아는 포켓볼 복식결승에서 박기찬·한소예(울산당구연맹)에게 7-8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서서아는 10볼 여자일반부에서 진혜주(대전당구연맹), 임윤미(서울시청)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용진은 스누커 결승에서 우승후보로 꼽힌 이대규(인천광역시체육회)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호석 전남당구연맹 회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남당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 실업육상 챔피언십 30일 개막

남자 100m 김국영 대회 MVP 도전
광주시청 강다슬도 여자 100m 출전



김국영



강다슬

한국실업육상연맹이 만든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의 2022시즌 최종 승자가 전북 익산에서 탄생한다.

실업육상연맹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FT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 단거리(남녀 100m, 200m, 400m 허들, 여자 100m 허들, 남자 110m 허들), 중장거리(남녀 800m, 1500m, 5000m, 3000m 장애물), 도약(남녀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투척(남녀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부문 1위에게 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2위는 200만원, 3위는 100만원을 받는다.

부문별 순위는 세계육상연맹 스코어링 테이블로 계산한 포인트로 정한다.

더 좋은 기록으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더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선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MVP 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 실업육상연맹은 '개별 대회'를 '시리즈'로 묶는 작업을 했다.

3월 30일에 열린 여수 1차 시리즈, 4월 대구 중별육상선수권, 5월 초 나주 2차, 5월 말 익산 3차, 7월 고성 4차 시리즈 등 5개 대회 결과를 집계해 익산 챔피언십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했다.

남자 100m에서는 한국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31·광주시청), 10초17의 선수 기준 한국 2위 기록을 작성한 김태호(29·광주시청)가 랭킹

포인트 1, 2위에 오르며 챔피언십 진출권을 얻었다. 둘을 포함한 총 8명이 챔피언십에 나선다. 남자 100m 결선은 30일 오후 6시 20분에 열린다.

여자부에서는 멀리뛰기에 시선이 쏠린다.

유정미(28·안동시청)와 이희진(24·청양군청)이 올 시즌에 펼친 멀리뛰기 일인자 경쟁이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진다.

여자 멀리뛰기 한국 기록은 정순숙이 2009년에 세운 6m76이고, 2위 기록은 김수연이 2006년에 작성한 6m53이다.

유정미와 이희진의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23년 묵은 한국 여자 멀리뛰기 기록 경신을 향한 희망도 커졌다.

경쟁자이자, 절친한 선후배인 둘은 30일 오후 7시 20분에 시작하는 익산 챔피언십에서도 멋진 승부를 예고했다.

여자 100m 강다슬(광주시청), 중장거리 최강자 김유진(경산시청), 여자 원반던지기 한국기록(56m31) 보유자 신유진(익산시청), 남자 200m 고승환(국군체육부대), 5000m 한국기록(13분 42초98)을 보유한 백승호(고양시청) 등도 주목해야 할 선수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남자 높이뛰기 이상혁(국군체육부대)은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출전을 위해 한국실업육상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 2연승

2021-2022시즌 프로배구 통합챔피언 대한항공이 국군체육부대를 완파하고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이하 컵대회)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다.

대한항공은 24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컵대회 남자부 B조 예선 2차전에서 국군체육부대에 세트 스코어 3-1(19-25 25-22 25-19 25-15)로 이겼다.

대한항공은 26일 열리는 삼성화재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준결승에 진출한다. 국군체육부대는 2연패에 빠졌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대한항공은 1세트에서 다소 흔들렸다. 선수들은 몸이 덜 풀린 듯 몸놀림이 무거웠고,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며 원활한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1세트에서만 국군체육부대에 서브 에이스 4개를 헌납했다.

1세트를 내준 대한항공은 2세트에서 경기 흐름을 잡았다.

주포 정지석이 22-22에서 결정적인 서브 에이스를 성공하며 기세를 가져왔고, 국가대표 야포짓 스파이커(라이트) 임동혁이 오픈 공격과 블로킹으로 연속 득점하면서 세트를 끝냈다.

3세트는 손쉽게 가져왔다. 임동혁이 3세트에서 만 7점을 올리는 등 공격을 주도했다.

4세트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12-10에서 김민재가 국군체육부대 김동영의 후위 공격을 블로킹해 득점한 뒤 임동혁의 서브 에이스로 점수차를 벌렸다.

이후 임재영이 김동영의 백어택을 막으면서 상대 팀 추격 의지를 꺾었다.

임동혁은 블로킹 득점 3점을 포함해 26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공격 성공률은 81.48%에 달했다.

/연합뉴스

'트레이드 요청' NBA 간판 듀랜트, 결국 브루클린 잔류

올여름 이적을 원했던 미국프로농구(NBA) 간판 공격수 케빈 듀랜트가 결국 소속팀 브루클린 �츠에 남기로 했다.

손 마크스 브루클린 단장은 24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내고 듀랜트의 팀 잔류를 알렸다.

마크스 단장은 성명에서 "전남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와 스티브 내시 감독, 조 차이 구단주가 함께 듀랜트와 그의 사일 파트너인 리치 클라이먼을 만났다"며 "우리는 농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을 브루클린에 우승을 가져다주는 장기 프랜차이즈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좇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팀과 2026년까지 계약한 듀랜트는 지난 6월 말 돌연 사표를 밝히지 않고서 팀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현직 전문가, 매체들은 듀랜트가 2019년 우승을 노리고 브루클린에 합류했지만 이후 팀이 연이은 악재에 직면하며 우승권에서 멀어지자 다시 자신을 중심으로 우승에 도전할 팀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듀랜트 합류 당시 브루클린은 젊은 선수들이 뭉쳐 4년 만에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하며 전망이 밝다는 평을 듣는 팀이었지만, 이후 원투펀치로 낙점받은 카이리 어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등 갖가지 사유로 결정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듀랜트의 트레이드 요청 이후 두 달가량이 지나는데 동안 브루클린은 보스턴 셀틱스, 토론토 랩터스 등과 논의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아직 듀랜트가 어떤 이유에서 마음을 바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헌트
3관	육사오(6/45)
4관	한산: 용의 출현
5관	볼릿 트레이너
6관	육사오(6/45)
9관	볼릿 트레이너
7관	한산: 용의 출현,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 DC 리그 오브 슈퍼-팻
8관	늑,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11시 음악산책
독일음악의 성지, 라히프치히

일시: 2022. 8. 29.(일)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
김동현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2022. 9. 5.(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